

휴가철, 대덕 CEO는 대부분 '휴가반납' ... 위장휴가형, 자기계발형 등 다양

대

덕벤처 CEO들의 여름휴가 유형은 어떤 모습일까? 이들의 여름휴가 계획은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벤처기업 CEO들은 이번 여름휴가를 포기하는 유형이다. 올 여름휴가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휴가계획을 갖고 있는 벤처 CEO는 거의 없다. 대부분 대덕밸리 벤처기업 CEO들은 '언제 휴가다운 휴가를 가보나' 하고 한결같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나를 찾지 마세요'형 대다수 대덕벤처 CEO들이 쓰는 방법. 별도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휴식을 취하려고 휴대전화를 끄고 어디론가 잠시 사라지는 유형. 생존을 위한 절대절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휴가계획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명상 휴가'를 즐기는 셈이다.

위장휴가형 창업이래 휴가를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는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오는 8월 중 중국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석하며 휴식도 겸하는 일종의 위장휴가로 즐길 계획이다.

자기계발형 골프존 김영찬 대표는 여름휴가를 그간 바쁜 업무로 미뤄왔던 독서로 보낼 예정이다. 또한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휴가기간 동안 '살과의 전쟁'을 치를 계획이다.

'일단 떠나고 보자'형 최근 수출 대박으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빛과전자 김홍만 대표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회사 집단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바다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또 에빅사 이준표 대표 역시 바다로의 휴가 계획을 세웠다.

'효도합시다'형 터지지 않는 가스렌지를 개발한 건국산업 박진하 대표는 8월 일주일 휴가를 맞아 울산에 내려갈 계획이다. 그간 못다한 효도를 하기 위해서다.

신제품 신기술

지피엔이, 코발트 없는 습도지시카드 개발

인체무해, 환경친화적... 품질 테스트 진행 중



잠

재적 암 유발 가능물질인 코발트(cobalt)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습도지시카드(CF-HIC, cobalt-free humidity indicator card)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대덕밸리 환경전문 벤처기업 지피엔이(대표 조일훈)은 인체에 무해한 첨착용액을 사용한 환경친화적인 차세대 습도지시카드를 개발, 상용화(상품명 HumiSafe™ Series)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습도지시카드는 습기에 민감한 반도체 칩, PCB(인쇄회로기판) 및 정밀전자기기 등을 포장할 때 제품과 함께 넣어 유통과정에서의 제품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회사가 개발한 습도지시카드는 인체에 무해한 지시약, 일반 염화물, 천연 식용색소 등을 조합한 환경친화적인 지시물질을 사용,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염화코발트 사용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이번 카드에 이미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부터 샘플 요청이 들어와 품질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사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습도지시카드를 2002년 처음으로 국산화해 현재 국내 습도지시카드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 대만, 미국 등에 수출도 하고 있다.